

‘폴리머’지의 위상과 ‘폴리머’지의 새로운 변화

A. ‘폴리머’지의 위상

‘폴리머’지가 한국고분자학회의 공식적인 학회지로 1977년 창간된 이래, ‘폴리머’지는 2002년까지 27권에 2,000 여 편의 논문을 발행하였습니다. ‘폴리머’는 처음에는 한글과 영문 논문을 같이 게재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유일한 학술지였으나, 1993년부터 학회의 학술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전용’ 학술지인 ‘Korea Polymer Journal’을 자매지로 발행하였고, ‘폴리머’지는 ‘한글’ 학술지 기능을 맡았습니다. 이 자매지는 ‘폴리머’지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였고, 2002년에는 학술지 이름을 ‘Macromolecular Research’ (MR)로 변경하였고, 또 SCI 에 등록되는 국제적 학술지로 성장하였습니다.

‘폴리머’지의 명성은 Chemical Abstracts (CA)에 실리는 9,000여종의 잡지 중에서 ‘폴리머’지는 1,500개의 중요한 화학 잡지 (key chemical journals 또는 core journals)에 속한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고, 이것은 ‘폴리머’지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머’지는 그 외에도 여러 색인지에 인용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Science Citation Index (SCI)에는 3,745종, SCI Expanded에는 6,010 종의 잡지들이 색인되는데, ‘폴리머’지는 1998년부터 SCI Expanded에 등록되어있는 국내에서는 몇 안되는 학술지입니다 (1998년 편집위원장 성용길, 편집부위원장 송기국). Materials Science Citation Index 에는 인용되는 많은 학술 잡지 중에서 ‘폴리머’지가 세계에서 558종의 주요 학술잡지 목록 (world's leading scholarly journa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hemistry Citation Index에는 여기에 인용되는 학술 잡지 중에서 ‘폴리머’지가 세계에서 494종의 앞장서는 화학 관련 학술 잡지에 속합니다. Polymer Contents에도 ‘폴리머’지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폴리머’지는 위에서 인용한 자료에서 보듯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학술 잡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폴리머’지에 투고해준 많은 저자들과 이전의 편집진들의 노고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위상을 계속해서 더 높이고, ‘폴리머’지의 논문들이 더 많이 읽히고, 국내 및 국제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에 더 많은 충격 효과를 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B. ‘폴리머’지의 새로운 변화

‘폴리머’지의 자매 영문 학술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가 2002년 SCI에 등록이 되면서, 한국고분자학회는 2002년부터 ‘폴리머’지의 위상도 더욱 걸맞게 올리는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하였으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도 늘여서 자율과 책임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또 편집위원회를 더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이미 알고계신 것과 같이, 이러한 노력은 2003년 ‘폴리머’지 제27권 제1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인용되는 “폴리머”지로 만들기 위해, 논문 투고가 더 편리하고, 심사 및 편집과정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기준을 더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즉 몇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리머’지의 크기 변화 - ‘폴리머’지의 크기를 더 크게 변경하고, 글자 크기도 읽기 편하도록 키웠습니다. 그리고 목차 등 내용의 배열도 변화시켰습니다.

2) ‘폴리머’지의 투고 규정 변경 및 논문 작성 방법 안내 - 저자들이 더 쉽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폴리머’ 투고 규정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변경하였고, 학회 홈페이지에 ‘논문작성 방법’을 게재하여서 투고 논문의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폴리머 투고 표지’도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 서식에 의한 투고 - 전자 서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식을 사용해서 저자들이 직접 편집에 참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 4) **심사 과정과 교정 과정** - 심사 과정과 교정 과정도 더욱 쉽고 편리하고 신속하도록 바꾸었습니다.
- 5) **편집위원의 보강** - 편집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늘렸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편집위원들로 위촉하여서 편집 과정이 좀더 정확하고 활발하고 능률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6) **국제저문위원** - 국제 저문 위원도 새로 위촉하여서 저문을 받도록 하여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7) **편집위원장의 의견** - 게재가 확정된 투고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붙여서 투고된 논문이 좀더 규정에 맞고 문장, 문법 또는 미학적 관점에서 알맞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8) **윤리 지침** - 편집위원, 저자, 심사위원들의 윤리 지침(안)을 마련하여 '폴리머'지의 편집진, 저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윤리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더 수렴하여 이 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C. '폴리머'지의 인용

'폴리머'지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폴리머'지의 위상을 더 높이고 내실을 기하려고 편집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즉, 학술지의 위상은 개제된 '논문의 우수성과 중요성'이외에도 그 학술지가 인용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에도 달려있습니다. 역지로 인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폴리머'지의 논문이 적절한 경우에는 인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색인을 만드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슬을 잘 꿰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머'지의 내용도 다른 국내 학술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외국 학술지들에 비해서 색인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폴리머'지의 주요한 논문들도 인용에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머'지에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우리나라 고분자 학계에서 발표한 2,000여 편의 각 분야별로 새로운 연구의 발판이 될 좋은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석같은 논문들을 찾아서 새로운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 또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검색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홈페이지에 가서 "저널검색" 창으로 들어가서 '폴리머'지와 'Macromolecular Research' 등을 검색합니다. 키워드, 저자명, 연도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지와 'Macromolecular Research' 등을 검색하여 참고하여서 새로운 연구와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D. '폴리머'지의 장래

학술지의 장래와 명성은 무엇보다도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우수성과 중요성에 달려있습니다. '폴리머'지에 계속해서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투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폴리머'지 편집진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학술 지인 '폴리머'지의 위상을 더 높이고, '폴리머'지의 논문들이 더 많이 읽히고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에 더 많은 충격 효과를 주도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저자와 논문 심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폴리머'지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내용과 관련된 불편한 점 또는 개선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리머'지 편집위원회>